

韓屋의 歷史와 그 構造

申 榮 勳

1.

나무를 주요 재료로 써서 짓는 木造建築物이 高麗時代에 이어 이 시대에도 건축조영의 주류를 이루었다.

목재가 위주로 되는 집이라고 하지만 집에는 돌과 진흙, 토도제품(土陶製品)과 풀(草)·종이·가죽등도 쓰여서 재료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 하고 鐵의 생산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新羅·高麗時代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의하여 조영되는 건축의 조직(組織)과 내용(法式과 技法)도 계승되어 대한제국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木材가 건축의 중요한 조직과 내용이므로 목재를 다루는 기술자가 건축경영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 중심인물은 의장(意匠)과 기획과 시공과 화엄(華嚴)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였다.

목재다루는 최고의 기술자는 지금의 建築士들이 하는 설계작업과 감독을 겸행(兼行) 하여야 되었고 자기에 딸린 기능자들을 적소에 배치하여 반입된 자재를 적절히 구사하도록 지휘편달하여 시공을 진척시켜야 하였으며 돌과 기와 흙을 다루는 기술자와 기능자들과 협의하고 구사하여 목표한 건물을 완성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성곽처럼 돌을 많이 쓰는 工事일 경우에는 돌다루는 기술자의 우두머리를,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두 건축가가 협의하여 진척되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건축의 전반은 목재다루는 분야의 최고 기술자를 공사진행의 우두머리로 두고, 그를 주축(主軸)으로 하여 공정을 꾸려나갔다. 이런 제도는 국초(國初)부터 말엽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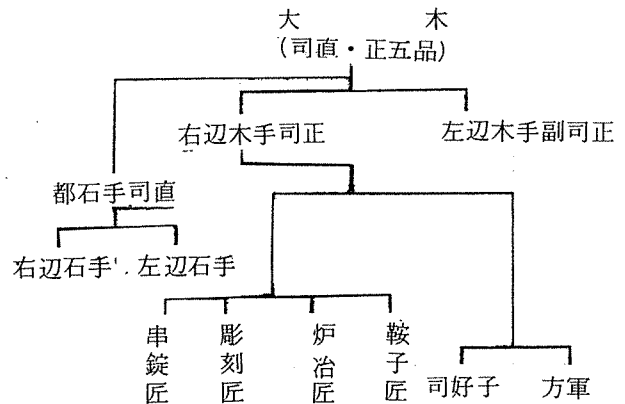
太祖는 開城에서 漢陽으로 도읍을 옮긴 후 새서울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성곽의 南大門으로 崇禮門이 그의 즉위 5년(1936년)에 창건되었다. 이 공사에 이어 이 門은 世宗30年(明 正統 13年·1448年)에 實錄에 反映되었듯이「新作」하는 정도의 개건(改建)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공사에는 提調로서

正憲大夫議政府左贊判戶曹事 鄭 恭
資憲大夫刑曹判書 閔 伸

이 활약하였고 그의 監役官·別監役등의 스태프가 보좌하였다. 실제 작업을 한 건축가와 기능자로는 正五品 司直 벼슬의 大木을 우두머리로 한 일군(一群)이 활약하였다.

大木司直 崔健國 都石手司直 申乃行 右邊木手司正 鄭金等二十二 左邊木手副司正 崔濟等二十二 耳匠二三番 弁國 右邊石手 朴永南等十四 左邊石手 李義成等十四 各□□□ 串錠匠一二三番 合六十三 (註1) 彫刻匠五名 炉冶匠十三名 鞍子匠十二名 方軍九百名 (註1) 1961年度 南大門解体 修理時 2층 中도리받침장려에서 洪武29年(太祖5年·1936年) 搬建工事時 從事하였던 사람들과 關係記錄이 墨書되어 있음을 찾아내었다.(申榮勳: 南大門上標文·考古美術資料 第5輯 "韓國古建築上標記文集 1964年6月刊 P. 10 참조)

이것을 직위에 따라 도표로 작성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기구였으리라고 추정된다.



여기의 大木 司直은 正五品 벼슬로 監役官(繕工監) 從九品(註3) 보다는 높은 벼슬이었다.

南大門은 成宗10年(成化15年·1479年)에 또 한번의 개수가 있게 된다. 이 때의 기술자 그룹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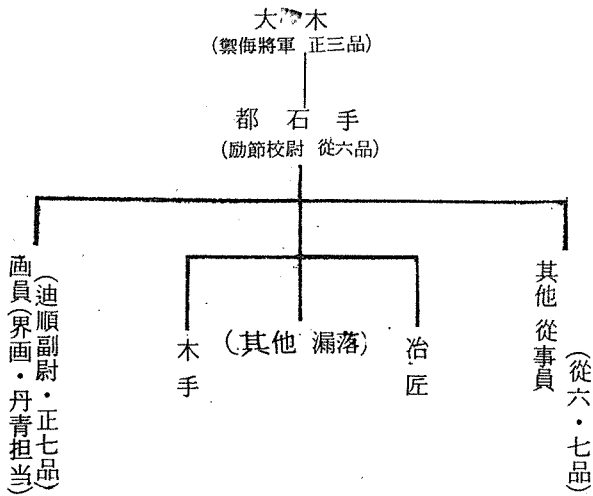
大木禦侮將軍行義興衛 □□□ □□□
都石手勛節校尉行義興衛副司勇 金元繼

(註3) 大典會通 卷一 吏典 京官職 從三品衛門과 卷四 兵典 京官職條 참조

画員迪順副尉行虎賁衛副司猛令 金汝文(?) (註4) 등인데 이들의 벼슬을 순위로 보면 大木이 禦侮 將軍으로 正三品 堂下官이며 都石手는 勳節校尉로 從六品이고, 画員迪順副尉는 正七品으로 大木의 지위는 월등하게 높다. 南大門墨書銘에 기록된 이 당시의 기술자 기구표를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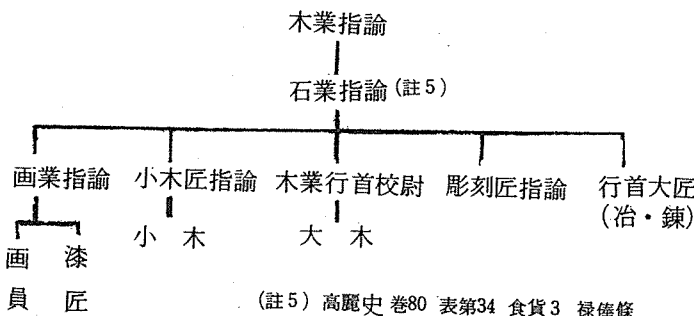
로 만들어 본다면 분명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되리라고 추정된다.

(註4) 前掲書 南大門上樑文 참조



大木 혹은 都木首로 불리던 사람은 다른 부분의 기술자 우두머리 보다 월등한 대접을 받고 있었음을 이로써 알 수 있겠다. 이와같은 제도와 大木의 우대는 高麗時代에도 마찬가지이었다.

高麗時代의 大木은 木業指諭라고 불렀는데 都校署에서 米20石의 祿俸을 받았다. 都石手라고 할 石業指諭도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画業指諭는 이보다 격이 낮은 15石의 中尚署米를 받았었다. 祿俸의 차이로 高麗時代의 각 공장(工匠)의 등차(等差)를 포로 만들어 조선시대의 기구와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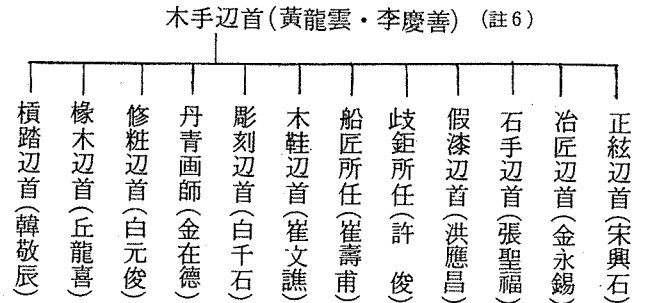
(註5) 高麗史 卷80 表第34 食貨3 祿俸條

이 표에서 보면 木業指諭아래 다른 指諭와 동등한 木業行首校尉라는 또하나의 계급이 있다. 이것을 필자는 木業指諭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축가에 해당하는 직책을 갖는 자리이고 木業行首校尉는 大木의 각분야를 총괄하는 기술자들의 우두머리 즉 都木手로 해석하고 싶다. 조선조 초기에서는 木業指諭라는 직명(職名) 대신에 大木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러한 大木이 앞의 두 기구표에 보이는 大木으로 건축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진왜란을 거친후 이런 기구구성의 제도는 다소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나무를 다루는 大木을 건축가로 여기는 태도에는 다른 변화가 없으나 大木이 거느리는 木業의

각 분야는 대단히 세분되고 각 세분된 분야마다 우두머리를 따로 갖게 되었다. 공정이 분업화(分業化)된 것이다. 조선 말엽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경향이 한층 뚜렷하여지고 분업은 심화(深化) 하였다.

高宗 6年(1869年)에 營建都監을 열고 서울성곽의 동대문인 興仁之門을 중건(重建) 하였다. 청계천에서 스며드는 지하수 때문에 門 일대가 습하여서 자주 손상 되므로 옛날 건물을 헐고 석축부터 새로 쌓고 초루(譙樓)도 새로 짓는 거창한 공역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공사는 다음과 같은 기구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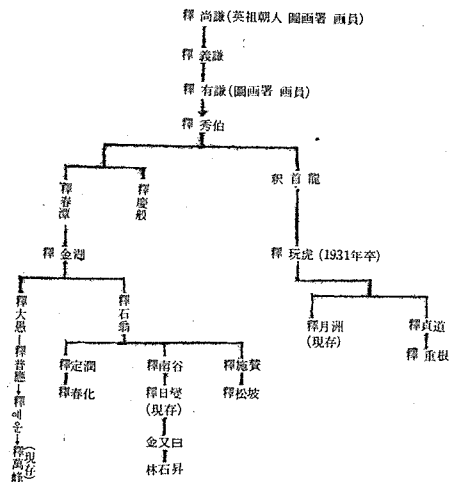
(註6) 前掲書 東大門上樑文 P. 39, 40 참조

조선초의 大木이라고 할 木手辺首 수하(手下)에 木部에 종사하는 부분만도 槓踏·椽木·修粧·彫刻·木鞋·船匠·歧鉅의 일곱개 유형으로 세분되어 자기 자기 맡은 일에만 종사하였다.

국초부터 말엽에 이르는 木手위주의 제도는 국영의 건축물 조영뿐만 아니라 사원(祠·院)의 권위 건축이나 백성들의 사가(私家·民家)의 경영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2.

각 분야에 종사하는 기능자들은 자기 종문(宗門)의 계보(系譜)에 따라 전승되어 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전 분야에 걸친 계보의 조사를 끝내지 못하여 분명하게 꼬집어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들어난 인맥(人脈)에서 그러한 사실을 짐작하여 볼 수가 있다. 한 예를 단청(丹青)하는 화원(画員)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画員 釋 尚謙의 계맥을 이어오는 화승(画僧) 중 아직 재세(在世) 하면서 단청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釋日燮과 釋月洲의 계보를 살펴본 것이다. 이들은 혈연(血緣)과는 관계없이 수제자(首弟子)에 의하여 계승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수제자에 의한 계승은 木手들의 계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註7) 丙府海：丹青・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第81号・文化財管理局 1970年 12月刊 油印物

불교가 억압되고 사찰건축이 활발하게 조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찰건축의 단청화엄은 승려들에 의하여 제작되어져 왔다. 이들 승려들이 어느때 부터인지 세속(世俗)의 권위 건축(權威建築)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여서 중엽이후부터는 화승(画僧) 들에 의한 세속건축의 단청작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正祖때의 수원(水原) 華城 城役에서는 丹青 画員으로 46명이 동원되었었는데 그중의 40명이 화승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註8)

(註8) 華城城役儀軌 財用篇 참조, 여기에는 동원된 인원과 작업일수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圖画署 소속의 画員이 국가경영의 건물 단청작업에 동원되는 수도 있었다.

画員 金明(鳴)國 (儲承殿)

画員 金汝文(南大門)

画員 嚴致郁(華城)

등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画員이라는 직책에는 원래 그러한 직위가 있었던 모양이다. 大典會通에 「繕工監官員 相地官 画員進去奉審」이라는 기록에 등장하는 画員은 살펴본 터의 지형(地形)을 측량하여 스케치하여서 그것을 임금께 바쳐 기획의 자료로 삼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圖画署 画員의 이러한 직책은 土木之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茶山 丁若鏞은 「經世遺表」에 자기가 주장하였던바를 기록하여 두었는데 그에 이르기를 「臣謹按 周禮繪圖之事 備見子考工記 其本冬官所掌可知故 今屬于工曹 原典屬禮曹」라 하였다. 禮曹에 소속되어 초상화나 그리는것 보다 본래 임무인 계화(界畵) 기법을 위주로 하여 아예 동관(冬官·工曹)으로 예측시키는 것이 옳다고 한 주장이다.

계화(界畵)라는 그림의 기법은 자를 대고 직선을 긋는 화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土木之役의 기본계획안(지금의 설계도)을 그리는데 기본되는 것이다. 유명한 「華城城役儀軌」의 설계도(투시법에 의함)나 「慶熙宮配置圖」(藏書閣藏)나 「東闕圖」 「西闕圖」등이 모두 画員들에 의하여 그려진 계화에 의한 그림들이다.

건축가들에 의하여 의장(意匠)된 건축물은 의례 이렇게 도면화되며 시공도에 따라 진행되게 마련인데 최근 세에 이르러서는 이 설계도를 동양판이라 이름지어 부른다.

大木과 그의 씨시스템에 의하여 진행되는 건축물 공사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공조(工曹)에서 관장하였다. 「掌

工匠造作等事」는 工曹에서 맡기로 國初로부터 정하여졌다. (註9) 工曹는 漢陽에 서울을 잡은 후 刑曹 남쪽 積善坊에 청사를 마련하고 (註10)

(註9) 太祖實錄 卷1 5年3月 丙申條

(註10) 東國輿地備放 卷之1

宮室과 城池, 公廡와 屋宇의 土木役과 百工制作을 맡아 하였다. 이를 위하여 營造司 政治司 山澤司가 있고 營造司는 建築과 土木을, 政治司는 工業과 製品을, 山澤司는 港灣, 橋樑, 庭園과 機具를 맡아처리하였다.

工曹 外局으로 繕工監·修城禁火司·掌苑署·互署와 造紙署·尚衣院·典涓司등이 있었다. 工曹는 土木之役의 경영뿐 아니라 그 유지와 관리에도 책임이 있었고 度量衡도 관장하였다.

土木之役의 기본은 역시 尺度이고 尺度는 建築의 양식과 법식과 기법을 지배하였는데 이 시대에는 營造尺과 周尺이 土木之役의 基本尺度이었다.

工曹에서 관장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행정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대사업이 전개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都監이 따로 구성되었다. 국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면 領議政등 최고위 책임자를 都監의 都提調로 差下하고 그를 보좌할 여러명의 提調를 임명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高麗때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都監의 提調들은 重臣이거나 土木之役에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여 쓰는데 임금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의 기호에 따라 일을 진척시키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提調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太祖가 金師幸과 金湊에게 많은 일을 맡겼던 것이나 太宗이 朴子靑을 믿어 守門將出身을 높은 벼슬까지 나리면서 여러 工役을 맡겼던 일이나, 光海君이 李冲을 기용 하였던 내용이나 正祖가 趙心泰로 하여금 華城役의 책임을 맡겼던 것이 그러한 例인데 임금과 그 提調의 성격에 따라 건축의 내용에 차이를 갖게 되었다.

韓國建築史大系 全10卷

2. 韓國古建築斷章 上·下

申榮勳·金東賢 共著

- 各卷 352頁 46倍判
- 函版 及 函面 1,000余点収録
- 各種 新資料 豊富히 収録
- 新建築 設計, 施工에 應用될 친절한 函解의 収録

各卷 定価 6,000원

팔작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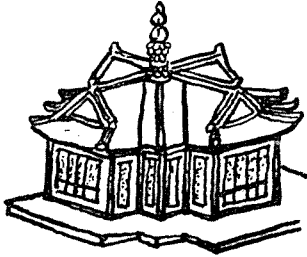
맞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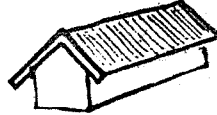
육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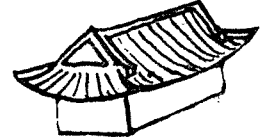
多角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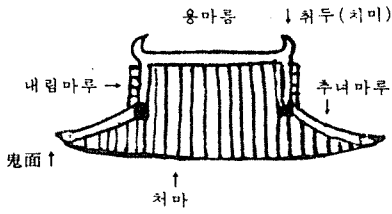
지붕의 종류



맞배지붕



팔작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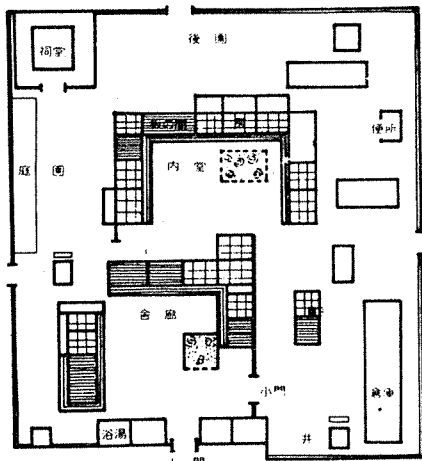


지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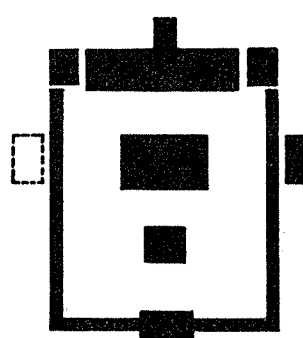


우진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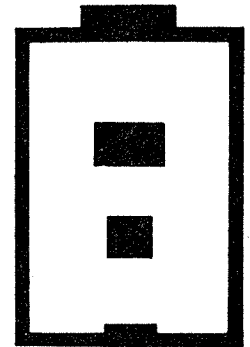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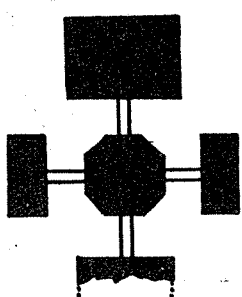
李朝住家 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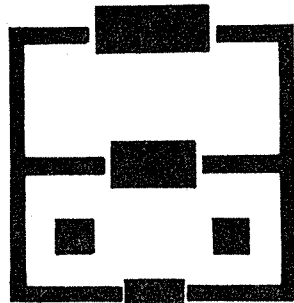
軍守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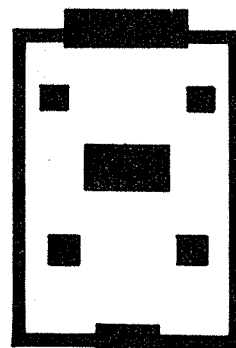
皇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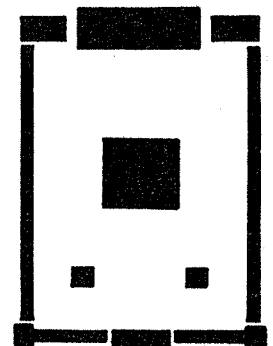
平壤 清岩里



感恩寺



四天王寺址



千軍里